



건전한 직업의식 함양을

김 농 주 | 연세대 취업담당관

연초부터 덕담으로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는 “부자 되세요”란 말이 사람들의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 말은 1960년대 한국 사회에서 “아침 드셨습니까”란 유행어가 만들어져서 오전 중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국민 사이에 의례적으로 주고받았던 시절의 말과는 비교된다. 1960년대는 아침 식사를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관계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침 식사를 했는가를 물어 보는 말로 이런 유행어를 썼던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40년간 압축(壓縮)성장의 과정에서 이제는 밥을 먹고 생활할 정도는 되어 서인지 앞으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 양 이 말은 대중적 유행을 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말이 함의하는 좋은 측면의 의미와는 달리 지나치게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자기의 직업 진로를 정하려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1989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소더비 경매장에서 희귀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시계 하나에 무려 4만 5천 달러 값으로 흥정되어 팔려나간 것이다. 프랑스 예술가 ‘크리스티앙 샤프롱(Christian

Chapiron)’에 의해서 디자인된 스와치(Swatch) 시계가 그렇다. 시계 하나로서는 고가인 이 시계는 120개만 만들어져서 스와치는 이 일로 명성을 얻게 되고 더욱 부자 회사로 성장하지만, 이 시계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는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다.

엘레 맥퍼슨(Elle Macpherson)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갑부 슈퍼 모델이다. 그녀가 모델 일을 통해서 번 재산은 3,600만 달러 수준이니 큰돈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부자가 된 것이다. 직업 모델로 이런 돈이 모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1999년 모델 크라우디아 쉬퍼(Claudia Schiffer)의 연 수입이 900만 달러였으니 모델의 연봉으로도 잘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직종에서의 고액 연봉자들은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된다는 점이다. 연봉을 높게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전 지구상의 13만 5천 개의 모든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보수만을 보고 선택하려는 사람은 한편의 말만 듣고서 상황을 파악하려는 사람과 같다.

일찍이 우리의 역사 속 인물인 송시열은 딸에게

* 지난 호(제 109호~제 116호)까지 “대학 수상”이란 칼럼으로 대학 내·외 인사 중심으로 에세이 형식의 글을 게재하였으나, 이번 호(제 117호)부터는 “대학에 바란다”라는 대주제 하에 대학 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관련 인사들의 견해를 집중 조명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연속 게재하고자 한다. - 편집실 -

“

건전한 근로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은 한국의 대학들이 여러 행태로
 더 강화해 가야 한다.
 소외되고 힘든 영역의 일이지만 가치관을 중심으로,
 미션과 진정한 생애 비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직업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말해 줘야 한다.

”

주는 말속에서 “일속에서 자기의 이(利)만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되지는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경제적 이득만이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기만의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준 지혜라고 생각한다. 만약 슈바이처 박사가 경제적 이득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선택했다면 아 프리카로 가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개의 박사 학위를 갖고 유럽에서 의사로서의 안락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치관으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진로를 택한 것이다.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의 젊은이들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로 돈이 많이 보이는 곳으로만 직업을 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경향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청소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열심히 공부한 Z군이 물욕에 빠져서 증권 작전 세력에 들어가 일하다가 물의를 빚는 행태를 보면 의(義)와 자기의 맘의 소산에서 나온 물질만 자기 것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두 가지가 견비되지 않은 터전에서 나온 재

화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본다. 가난 그 자체가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지만, 일 속에서 성실하게 돈을 벌되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자기의 진정한 수고를 통해서 벌어야 한다.

부자의 개념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많은 재물을 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라기 보다는, 물질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를 위해서 지혜를 많이 창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불러야 한다.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적극 장려할 일이지만, 돈이 보이는 일만이 가치가 큰일은 아니라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아의 적성과 잠재력 가치관을 먼저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학의 직업의식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물질은 자기가 손수 벌어서 가치 있게 쓸 때 그 진가가 나타난다. 불로소득은 바래서도 안되고 얻어서도 안 된다.

건전한 근로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을 한국의 대학들이 여러 행태로 더 강화해 가야 한다. 소외되고 힘든 영역의 일이지만 가치관을 중심으로, 미션과 진정한 생애 비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직업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말해 줘야 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에 대한 물질적인 대가인 연봉의 높낮이만을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심화된다면 심히 나라의 미래와 우리 청소년들의 개인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그렇다고 열심히 정직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생애를 성공적으로 일구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보수가 다소 작더라도 더 큰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풍요한 성공을 거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점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개념적으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한국 사회속에서 체계적으로 더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직업을 택하는데 있어서 신세대들이 보수를 가장 선두 준거기준으로 삼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 세상의 풍조가 영적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경시하고 물질을 우선시 하는 풍조만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보는 성공의 관점도 물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두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이런 연봉 우선의 직업 선택관이 우리의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

"소신에 맞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과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개발이나 엔지니어 직업군에 가지 않고 보수가 높은 영업직으로 가려는 이런 경향이 깊어져서 같은 직장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연구개발 분야에는 우수 인재들이 가지 않고 활동비 등 여러 보너스가 많은 영업직에만 집중화되어 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청소년들이 더 몰린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가 심히 어둡다."는 기업이 R&D의 말이 뇌리에 스친다. 이런 행태로 우리의 기업인력 구조가 변해 간다면 "부자되세요"란 말은 개인과 기업 국가의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자기의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찾아가서 일을 하

는 기풍이 직업 선택의 경향으로 자리잡은 나라가 건전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체근답에 이르기를 "사람됨이 뛰어나게 높아 원대한 일은 못할지라도 능히 속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는 곧 명류(名流)에 들것이요, 학문을 닦음에 있어서 뛰어나게 공부를 더 많이 하지는 못할지라도 능히 물욕을 덮어버릴 수 있다면 이는 곧 성인의 경지를 뛰어넘으리라."고 하였다.

사람이 일을 택함에 있어서 받게 될 보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일을 갖게 되면 한 인간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 자립을 해야 하고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수가 가장 핵심적인 일의 선택 기준이 되어 가는 작금(昨今)의 세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청소년들 중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재물을 향한 물욕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유지해 가야 할 인격적 품격(品格)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연봉의 높이만을 추구한 나머지 자기의 잠재적 자질에 부적합한 일을 택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기가 평생 동안 추구할 가치에 대한 진지한 자아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건전한 직업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 직업 기술과 기능을 함양해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김봉주**

김봉주

연세대에서 "내 외국인 회사에서의 직업 설계와 Career Design"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성장과정별 적성검사모델'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직업정보론」, 「지식 직업이 나의 미래를 바꾼다」, 「클릭 디지털 직업 혁명」, 「커리어 체인지」 외 다수가 있다.